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라 화엄 세계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0월1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입재한 가운데 423km 대장정이 시작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필두로 8개 조가 1줄로 걸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본지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천리순례단의 18일 간의 순례 여정을 매일 생생히 기록해 전한다.

◆ 함께 걷는 자리아타의 길

첫째 날 이슬을 맞으며 텐트에서 하룻밤을 지낸 순례단은 송광사 대웅전 앞에서 결집해 일주문을 벗어나 신흥리와 장촌리 등 약 22km 구간을 걸었다. 입재식을 가진 이날은 사성암에 도착하는 것으로 순례 일정이 마무리 됐음에도 천리순례단은 절벽 위 세워진 사성암 참배를 위해 또 다시 오르막을 올랐다.

천리순례 둘째 날인 10월2일 새벽3시 도량석 묵탁 소리가 순례단을 깨웠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하나둘 불빛이 켜졌다. 새벽에 내린 이슬로 흠뻑 젖은 텐트만큼이나 습기와 피로를 머금은 순례단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3시 기상, 4시 출발, 오후9시 취침. 하루 평균 30km를 18회에 걸쳐 걷는 강행군도 강행군이지만 뜨거운 땀방아래 마스크를 쓰고 걸어야 하는 것도 고역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진다. 늘 손에 끼고 살던 스마트폰도 걷기 내내 못 쓴다. 100여 명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는 만큼 각자 속도가 있어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하는 것 없이 전체 보행 속도에 맞춘다.

이제 막 출발점에 오르는 순례단이지만 이들 새 대중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운다. 8개 조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조 전체가 위정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만큼 몸이 움직여 주질 않는다. 초반이 최대 고비인 만큼 순례 2일차인 이날 부상자와 낙오자도 나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곡성 목사동면 구룡리 캠핑장을 빠져나와 용정리로 향하던 길. 최고령 참가자인 이채순(76) 씨는 이날 새벽 행선 중 어둠 속 숨을 길게 미처 발견 못하고 수풀에 발이 빠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우바이 그룹인 6조 선두에서 서서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것. 이채순 씨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걷는 길이라는 걸 실감한다”며 “다 같이 함께 가는 길인 만큼 스스로 안내하고 참회하며 대중과 화합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뒤졌다”고 말했다.

천리순례단은 이날 구룡리에서 암록리, 신월리 등 25km를 걸었다. 섬진강 절경이 펼쳐지는 뱃꽃길을 통과해 사성암 인근에 마련된 노상 숙소까지, 94명 걷기 조를 포함한 진행 및 지원팀, 동국



천리순례 5일차. 지리산 서북 능선의 세찬 바람을 텐트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낸 순례단이 시암재를 떠나 전남 남원까지 26km를 걸었다. 이날 순례의 선두는 8조가 맡았다.

남원=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대 일일 참가자 등 170여 명이 서늘한 이슬을 맞으며 뜨거운 햇빛 아래 묵언 행선을 했다.

◆ 부처님 세계, 화엄의 세계로

맑은 날 새벽, 물안개가 나타나면 섬진강은 몽환(夢幻)이다. 한 치 앞도 구분하기 어려운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가자장삼을 수한 채 달빛 아래를 걷는 100여 명 순례단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한 마디 말도 없이 묵언 정진하는 수행자들이 철쭉 같은 어둠 속, 서로의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물안개가 낀 섬진강을 따라 화엄사로 향하는 길,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적막을 깨고 폴 버린내는 어느 때 보다 싱그럽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108배 염주를 손에 쥐고 저마다 화두 삼매에 든 순례단이 곡성을 넘어 구례로 향했다. 3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진 익숙지 않은 강행군. ‘걷기’라곤 하지만 사실상 앞은 속보, 뒤는 구보나 마찬가지로 걷기에 호흡을 맞춰가며 걷는 순례단의 숨이 가쁘다.

천혜의 자연 속 맑은 날에만 볼 수 있다

는 안개마을의 절경도 눈에 들어올 리 없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집중력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이다. 머릿속엔 오만가지 생각이 스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지만 이내 비워진다. 끊임없이 마음을 닦는 일, 닦을 수(修), 행할 행(行) 그야말로 걸어서 하는 수행이다. 비구니 대현스님은 “다른 곳도 아닌 삼보 사찰을 내 발로 직접 걸어 순례하는 일이 꿈만 같다”며 “천리순례가 한국불교 대중을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했다.

이날 순례엔 일일 참가자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각회장)도 참여했다. 이원욱 의원은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 봤다”며 “국난이라고 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극심한 상태에서 코로나 극복을 비롯해 국민통합을 기원하며 걸었다”고 동참 소감을 전했다.

순례단은 이날 곡성에서 구례까지

25km를 걸었다. 일반 도로와 차도, 숲길과 산길을 올라 화엄사에 다다른 순례단을 화엄사 대중은 반갑게 맞았다. 화엄사 조실 명선스님은 일주문 밖까지 나와 순례단을 격려했다. 명선스님은 상아로 만든 108염주와 단주를 선물하며 “이 기운이 서로 상송 작용을 일으켜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군 공덕이 되길 불보살에게 발원한다”고 밝혔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이번에 복원한 국보 화엄사 사자사삼층석탑을 비롯해 순례단이 경내 곳곳을 참배하며 기운을 북돋길 바란다”며 “순례를 화합하는 날까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마음에 장엄하며 구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례단은 이날 화엄사 경내지에 마련된 화엄원 마당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또 화엄사에서 열린 화엄음악제를 통해 고된 여정을 잠시나마 달래는 시간도 가졌다.

◆ 어머니 품 같은 지리산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송광사를 시작으로 지난 3일 간 약 72km를 걸어온 천리순례단이 지리산 시암재를 향했다.

시암재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천은사는 화엄사 말사로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힌다. 지리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사찰 가운데서도 밝고 따뜻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절 옆으로 펼쳐지면서 절경을 이룬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취지에 따라 순례단은 바쁜 일정에도 천은사 참배를 빼놓지 않았다.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도 이날만큼은 적극적으로 불전함에 보시를 하고 앞장서 소원지를 썼다.

천은사에서 시암재로 오르는 길은 엄두가 안 날 만큼 까마득했다. 회향지로 지정된 시암재 휴게소까지는 약 12km로 평지와 달리 심한 급경사와 굽잇길이 반복되는 곳이다. 이번 순례 난코스라 꼽히는 구간. 순례단 눈 앞에 시암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지만 굽이굽이 가파른 길을 돌고 나면 또 다시 오르막이 반복됐다.

중간 휴식 지점을 지나 한참을 오르던 순례단은 예정보다 한차례 더 휴식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힘들 때마다 서로 “화이

팅”을 외치며 힘을 북돋는 순례단 속에서 백두대간 종주를 했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보통 신심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 세찬 바람 맞으며 능선을 넘다

천리순례 5일차. 지리산 서북 능선의 세찬 바람을 텐트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낸 순례단이 시암재를 떠나 성삼재에 올랐다. 하루 전 천은사에서 시암재로 이어지는 고도 958m 가파른 굽잇길을 오를지 두 발에 의지해 묵묵히 걸어 오른 탓인지 해발고도 1079m 성삼재에 오르는 순례단 발걸음이 무겁다. 고된 순례 길에도 이들을 위로하는 건 지리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능선을 덩달아 걷다 언뜻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 수천개 별들이 쏟아질 듯 은하수가 황홀히 펼쳐진다. 도심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이다.

순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함께 하는 이들과 서로 걸음을 맞추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지난 4일 간 행렬 제일 뒤에 서서 순례단을 뒷받침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10월4일 시암재로 향하는 길에서 바쁜 일정에도 천은사 불전함에 보시를 하고 앞장서 소원지도 썼다.

자승스님, “복 짓는 기도 합시다” 발원

각 사찰마다 정성스레 기도하고 부처님께 예경 올리며 불전해야 불자로서 기본 소임 다하는 것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423km를 걷는 일정 동안 순례단이 참배하는 사찰들이다. 천리순례단은 순례 기간 동안 5개 광역자치체와 12곳 기초자치체를 거쳐 간다. 삼보사찰을 포함해 9개 사찰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보 16점 보물 98점 등 가는 곳마다 불교 성보를 예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이끄는 회주 자승스님도 이같은 취지에 따라 각 지역 사찰마다 참배하고 기도하며 직접 불전을 하고 있다. 자승스님은 특히 지난 10

월4일 시암재로 향하는 길에서 바쁜 일정에도 천은사 참배를 빼놓지 않았다. 자승스님은 이날만큼은 적극적으로 불전함에 보시를 하고 앞장서 소원지도 썼다. 천은사 주지 대진스님 안내로 수홍루를 지나 극락보전 앞에 선 자승스님은 순례단과 함께 반야심경을 외고 “복 짓는 기도 합시다”라고 불전을 놓았다.

경내 팔상전 앞 북대지바위(소원바위) 위에 조성된 포대화상에는 직접 소원지를 써 매달았다. 소원지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원만성취 발원’이라고 썼다. 뒤이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이 ‘세계 5위 대학 동국대학교 발원’이라고 적었다. 자승스님과 성우스님 뒤를 따라 순례 참가자들도 잇달아 불전함에 보시하고 소원지를 적었다.

10월6일 남원 실상사에서 변화의 바

람을 위한 자승스님의 의지가 일했다. 자승스님은 오도재로 향하던 길에 실상사를 찾아 참배하며 순례단에게도 “각 전각마다 반드시 참배하고 가자”고 권유했다.

자승스님은 또 사부대중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자승스님은 이날 체계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에게 “다른 사찰에서도 실상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좋은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쯤은 전국에 있는 사찰을 자기 두 발로 반드시 걸어야 뜻밖의 것을 배울 수 있는 동시에 그 전에 앞서 불자라면 반드시 언제 어디에서나 삼보에 대한 예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로 일했다.

남원=박봉영 이경민 기자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